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우주+림희영

나의 친구, 티봉이



진심을, 그대에게 · 붉은 상어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철제 장치들이 기계적인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 키네틱 작업을 그동안 선보였던 우주+림희영의 <진심을, 그대에게>입니다. 이 작품은 모터로 작동하는 우주+림희영의 종래의 키네틱 작업을 빨간색 차의 엔진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연을 보낸 고객은 어린 시절 그가 접한 첫차인 97년 티뷰론을 형과 공유하면서 대학 시절까지 타고 다녔던 과거를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들 형제의 이름 돌림자인 ‘봉’을 티뷰론에 붙여서 ‘티봉이’라는 애칭을 붙일 만큼 차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고 합니다.

우주+림희영이 고객을 위해 제작한 소장용 소품은 차 이름인 ‘티뷰론’의 뜻이 상어라는 데에 착안해서 차체의 색깔인 빨간색으로 상어를 채색한 소품 <붉은 상어>를 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 작품은 다른 누구보다 차의 소유주에게 특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자동차 열쇠를 매개로 그 소유주와 연결되는 것처럼, 이 작품 <붉은 상어>를 작동시키려면 사연을 전한 고객의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만 합니다. 작품이 전적으로 사연을 전한 고객과의 관계성을 지향하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글 · 반이정



[brilliant memories] 작가 우주+김희영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1997년, 대학에서 장학금을 탄 형을 위해 아버지는 티뷰론을 사주셨습니다. 티뷰론에게 우리는 형제의 돌림자 '봉'을 넣어 '티봉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은 유학을 떠나면서 티봉이를 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티봉이는 저의 20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로 바꾸려고도 했으나 계약하고 돌아와 티봉이를 보고, 계약을 파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지켜준 티봉이와 정을 떼기란 정말 쉽지 않네요.

작가 우주+김희영



작가 인터뷰

사연을 읽는 내내 이것은 자동차라는 기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인에 관한, 친구에 관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20년을 함께 해온 티봉이를 대신할 무언가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 차를 계약하고 돌아온 후 티봉이를 보고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지켜준 티봉이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구상한 작업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상징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프로필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키네틱 아트를 보여주는 우주+림희영은 중앙대학교 조소과를 졸업 후 2009년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문화역서울 284, 포항시립미술관, 포스코 미술관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